

우리의 현대미술을 이끄는 젊은 작가들은 상당히 유학을 많이 다녀온다. 그래서인지 외국의 시각언어를 상당히 자기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대미술은 본질이 자기만의 독창적인 세계관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는데, 효과 자체의 메커니즘만을 배우고 오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좀 더 솔직한 경우는 여타 문명권에서 받은 이질감과 충격을 자기 언어화하는 사례다. 그러나 자기의 아픈 상처를 더욱 과장하여 보여주는 자기 연민에는 동감이 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친 상처에 소금을 부려서 호소하는 것보다, 차라리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는 것이 더욱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런 면을 볼 때 이피라는 작가는 모국과 다른 문명권 사이의 경험 사이에서 받은 충격을 외부로 적잖이 내비치는 여타 다른 작가들과 상당히 다른 면이 있다. 이피는 스스로 예술계에서 살아남는 전략이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온몸이 촉수이고 무기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다듬어진 메이드-인이 아니라 그냥 타고난 작가다. 자기에게 펼쳐진 일상생활에서 우주의 핵심을 파악하려 한다. 작가의 그림 속에서 『산해경』과 『서유기』보다도 환상적인 일상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일상은 현실, 실재는 리얼리티, 그 반대는 환상, 도취, 열락이라는 문구를 뒤집어엮는다. 물질과 정신은 본디 하나, 외부와 나의 내면은 하나라는 북송 5자 중 한 사람인 진정한 스승 정명도(程明道) 선생의 가르침을 일찌감치 깨달은 작가다. 이피라는 작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가 탐험하는 우주를 어떻게든 풀어서 해석해보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일상 자체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은 20세기 이후에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조선 시대의 선비들은 세계를 리(理)와 기(氣)의 펼쳐짐으로 보았다. '리'는 쉽게 말해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이데아나 로고스라고 보면 무방하다. 세계를 작동시키는 원리, 즉 정보(information)일 테고, 이 정보가 발현되는 물질적 베이스를 기라고 보았다. 기는 에너지다. 물질은 고도로 농축된 '하이 에너지(high energy)'이다. 조선성리학과 고대 그리스 철학은 너무나도 사이 좋은 친구 사이 같다.

쉬운 예로 정도전은 세계와 우주를 막걸리토로 비유하곤 했다. 막걸리통을 휘휘 돌리면 확산운동이 일어나다가 시간이 흐르면 맑은 기운은 위로 상승하고 무거운 곡기는 아래로 침전될 것이다. 막걸리통에서 벌어진 확산운동과 침전이라는 시간은 빅뱅우주론의 축소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막걸리통의 휘저음이 빅뱅일 것이다. 한없이 펼쳐진 액체의 확산운동은 별의 탄생과 폭발, 재탄생의 반복 과정일 것이다. 그리고 이 영원한 것 같은 우리은하계는 언젠가 차분하게 가라앉을 것이다. 이것을 열역학 제 2법칙의 최종과정, 즉 열사(heat death)라고 할 수 있다. 정도전의 비유는 현재 뉴턴 물리학, 열역학적 우주론, 빅뱅 우주론에 대한 생각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조선 사대부의 성리학의 철학적 수준은 현대물리학의 철학적 수준과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정밀한 수적 체계의 유무만 그 수준의 우열을 가릴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일반 민중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정도전과 같은 수준 높은 생각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생각은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귀신과 천지신명의 기분에 의해서 농사의 전망이 갈라졌으며, 자신들의 운명은 전생과 업보에 의해 예정되어있고, 현실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합리적 인과관계의 수순보다도 운에 따라 달라진다고 믿었을 것이다. 객관적 대상과 주관적 자아라는 확고히 구분된 분리적 사고보다도 운명이라는 수레바퀴의 유희에 의해 모든 것이 유전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운명의 수레바퀴 아래 사해동포의 의식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정도전의 의식은 현실적 물리학, 즉 기계론적 물리학에 가깝다. 세계(world, nature, universe, observed)는 나(self, subject, observer)와 분리되어 있는 객관의 대상이다. 관찰하는 나는 과학적

방법, 현실적인 기계론적 물리학에 의해 수치로 파악하고 확실한 리얼리티의 근거를 표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이 뉴튼적 우주관이 닐스 보어가 이끄는 코펜하겐 학파의 양자역학의 발견에 의해서 깨졌다. 닐스 보어로부터 더욱 진보적으로 발전한 데이비드 봄(David Bohm)과 같은 학자는 눈에 보이는 관찰 가능한 세계는 우리의 의식이라는 렌즈가 만들어낸 표상일 뿐, 확실한 객관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물질의 단위는 분자인데, 분자는 원자로 미립자로 나누어진다. 미립자로부터 더 분석하면 사실 텅 빈 공간만 나오게 된다. 이를 텅빔(void)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미립자들은 의식이 있다고 한다. 내가 미립자를 관찰하려고 하면 미립자는 나의 의도를 읽고서 저 멀리 도망을 친다는 것이다. 이 미립자의 가능한 법칙과 운동을 수치로 객관화시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더욱이 이상한 것은 텅빔(void)과 미립자(photon, electron) 사이의 실존적 토대를 이루는 미립자는 파동(frequency)으로 이루어졌다. 사람의 생각은 뇌 속에서 벌어진 화학물질의 고차원적 교차와 진동이었을 것이다. 그것들도 사실은 파동일 것이며 물질도 파동일 것이다. 물질의 최소단위도 의식이 있고 나의 생각도 의식이라면 물질(matter)과 정신(mind)은 대비적으로 분리될 성질이 아닐 것이다. 토마스 나겔(Thomas Nagel)과 같은 철학자는 『정신과 우주(Mind and Cosmos)』를 출간하면서 유물론적 세계관이 언제나 실패하는 이유를 논증하면서 정신과 물질은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봄과 같은 세계적 물리학자와 토마스 나겔과 같은 철학자의 사유는 엘빈 라스즐로(Ervin Laszlo)와 같은 천재 과학자와 사유를 함께한다. 라스즐로 역시 우주는 단일한 하나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이를 단일적 세계관(holistic world view)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라스즐로는 스코틀랜드에 최초로 생겼던 우유 배달제도에서 엄청난 영감을 받았다. 1940년대 당시 스코틀랜드 지역은 작은 유리병에 우유를 담고 종이마개로 막는 보관방법이 통용되었다. 우유를 배달하면 종이마개에 우유 크림층이 형성되어 묻게 되는데, 마침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병마개가 열려있는 광경을 아주 의아해했다고 한다. 어느 한 마리 지빠귀가 최초로 마개를 부리로 열어서 크림 층을 먹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스코틀랜드 전체로 퍼지다 영국 전체, 그리고 몇 년 이내로 유럽 대륙에서도 지빠귀에 의한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지빠귀의 행동반경은 겨우 수 킬로미터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라스즐로 교수의 발견에 의해서 칼 융의 집단무의식의 의미가 밝혀진 것이다. 인간의 의식도 누군가 무엇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 누군가 역시 그 생각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된다고 한다.

스타니슬라프 그로프(Stanislav Grof)와 같은 저명한 정신병리학 교수 역시 모든 인간의 의식은 하나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는 칼 융의 집단무의식 옹호자이기도 하다. 그는 우리 정신이 사람들과 훨씬 복잡하게 연결되어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고 또 다른 돌을 던지면 또 다른 파문이 일어나 그 둘은 만나게 될 것이다. 파문과 파문이 만나서 만들어진 제 3의 파문을 간섭파문(interfering ripple)이라고 한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것은 수면 위로 돌을 던지는 행위가 된다. 다른 누군가 생각을 하면 그것 역시 수면에 돌을 던지는 행위가 된다. 이렇게 만난 생각의 파장들이 집체적 의식을 이루게 된다. 이 학자는 우리의 전체적인 의식 역시 성장소멸과 같은 역사적 과정을 겪으면서 인류사를 발전시킨다고 본다.

그로프 교수의 기초적 연구 베이스는 데이비드 봄의 우주관이다. 이 우주 전체는 초양자장(super-quantum field)으로 가득 충만해있다. 초양자장이 겹치면 파동(wave, frequency)이 된다. 파동이 겹치면 그것은 미립자(photon, electron)가 된다. 미립자가 겹치면 원자(atom)가 된다. 원자

가 겹치면 분자(particle)가 된다. 분자가 겹치면 물질이 된다. 그렇다면 물질은 기본적으로 파동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우리의 사고는 화학적 물질의 순간적 작용이다. 이 화학적 물질도 파동이다. 그렇다면 정신(mind)과 물질(matter)는 근본적으로 분리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동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은 물질과 사물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나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파장의 간섭파문을 일으켜 거대한 에너지장을 구축한다. 그것을 칼 융은 집단무의식이라고 말했고 그로프 교수는 집단의식이라고 말했다. 그 의식 전체가 바로 신과 같은 것일 것이다. 정도전의 세련된 조선성리학, 뉴턴-데카르트의 주객 이분법의 사고보다도 조선 민중의 현실, 꿈 통합적 사고가 더욱 모던해지는 순간이다. 너와 나를 구분하는 정도전의 우주관보다도 너와 나, 물질과 나, 환상과 실재를 하나로 얼싸안는 민중의 시각이 현재 물리학의 태도와 비슷하다. 이피 작가의 환상적 세계와 일상세계의 하나됨은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우주를 가리켜 대상과 객관으로 구분하는 인식론으로부터 새로운 발견과 반성이 거듭되고 있다. 이피 작가는 우리의 생각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수준 높게 파악해낸다. 이피 작가의 세계관은 『서유기』에서부터 『화엄경』, 『금강경』과 같은 불교적 세계관을 두리 거치면서 농익은 수준 높은 것이다. 수피즘, 인도 『베다』의 우주관을 아주 잘 파악한다. 불교에서 현실계와 절대계에 양발을 두루 걸치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 양족존(兩足尊)이라고 하는데 주로 부처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피 작가가 펼쳐내는 예술의 세계는 양족존이 파악하는 우주에 대한 느낌을 우리로 하여금 현시하게 하는 힘을 지녔다. 과학은 우주를 정확히 그려내는 모상이 아니다. 과학은 세계를 바라보는 약속된 모델의 체계이다. 과학은 픽션이다. 예술도 픽션이다. 과학과 예술은 다른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존경 받는 나이 지긋하신 어느 화상(畫商) 선생님은 작가는 누가 나를 알아주든 말든 일평생 나의 길을 걷는 외로운 여행이자 투쟁이라고 했다. 젊은 작가들의 짧은 호흡의 부침(浮沈)이 빈번해진다. 정말 옳으신 말씀이다. 작업 자체가 스스로 재미있어 미칠 때 여행도 투쟁도 가능해질 것이다. 재능은 재미와 같은 말일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의 먼지 속에서 우주를 발견하고 우주 저편의 원리가 나의 내면에도 프로그램 되어있을 것이라는 이피 작가의 생각은 틀림없이 빛을 발할 것이다.